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 고찰: 국내 학술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박 성 민¹⁾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임 정 하²⁾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국내 학술지 발표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 논문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논문 총 47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논문의 발표현황, 연구대상, 연구유형, 관계적 공격성 변인 유형, 측정도구,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변인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수행되었으며,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관계적 공격성 변인이 종속변인으로 분석된 경우가 많았다.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는 부정정서, 정서조절능력 등 사회·정서발달 영역의 변인이,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포함된 가족특성 변인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과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관계적 공격성, 청소년, 개인적·환경적 특성, 문헌고찰, 학술지논문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jhlim@korea.ac.kr)

I. 서론

청소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격성이 표현되는 방식도 이전 시기와는 달라진다. 유아기와 아동초기에는 신체 동작이나 구두 표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이 주로 나타나지만,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면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Björkqvist, 1994).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이지 않은 형태의 공격성을 학계에서는 일찍이 간접적 공격성 또는 사회적 공격성 등으로 일컬어 오다가, Crick과 Grotpeter(1995)가 처음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이 혼용되었다. Voulgaridou와 Kokkinos(2015)에 따르면, 이 세 용어는 특정 대상에게 사회적인 해를 가하려는 의도와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간접적 공격성은 무시, 회피, 배제하기처럼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도 동원하지 않으며 뒤에서 은밀하게 해를 가하는 것인 반면, 사회적 공격성은 헐뜯기나 따돌리기와 같이 특정대상의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기 위해 다른 구성원을 동원하여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적 공격성도 또래관계를 조작하여 해를 가하는 것인데,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등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작이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Crick과 Grotpeter(1995)는 관계적 공격성을 또래 집단에서 배제시키거나 거부하기, 소문 퍼트리기, 사회적 관계에서 곤란하게 만들기 등

은밀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공격적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은밀한 방식이란 드러나지 않게 또래 관계에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조작을 가함으로써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를 손상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Mishna(2012) 역시 관계적 공격성을 질투, 배타성, 친밀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우정관계 안에서 관계를 해칠 목적으로 직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관계를 조작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특정대상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기 위해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조작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언어능력이나 사회인지능력이 일정 수준 발달된 이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문을 퍼뜨리거나 헐뜯기를 하여 다른 사람의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할 때, 타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는 등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Bowker & Etkin, 2014).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언어능력이 보다 정교하고, 타인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사회적 지위나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정옥신, 이재용, 2017). 하지만 청소년의 조절능력이나 대처능력은 성인에 비하면 여전히 미성숙하고 발달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관계적 공격성이 보다 고조되며, 이와 동시에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취약한 시기로 볼 수 있다(Björkqvist, 1994). 관계적 공격성을 가한 청소년과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모두 개인 내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부정

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관계적 공격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외로움이나 우울 등 내면적 문제를 가지게 되고, 대인관계나 학업성취 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그 영향은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Ellis, Crooks, & Woldfe, 2009; Preddy & Fite, 2012). 박수진, 박창열과 이동훈(2020)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본인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 또래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또래와 협력적이기보다는 적대적,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상황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비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가해 청소년도 또래에게 다시 복수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로 전환되는 등 관계적 공격성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 정도와 지속성의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주목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전생애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가 상대적으로 긴 단계는 아니지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큰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또한 각 발달영역의 성숙정도는 청소년기에 막 진입한 개인과 청소년기를 마치고 성인기 진입을 준비하는 개인 간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Atwater, 1996). 청소년초기에는 신체크기나 비율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논리적 추론과 문제해결능력이 발현되며, 정서와 성격, 대인관계 등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생식기관의 발달이 완성되어 신체적, 성적 성숙을 이루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정

옥분(2015)은 세 개의 하위단계인, 초기와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중학생까지의 연령대를 청소년초기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청소년중기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대학재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청소년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교육부(2019)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4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7년 대비 집단따돌림은 약 7%가 증가하였고, 신체폭행은 약 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사이버폭력의 가해와 피해 경험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해와 피해 경험은 대학생이 포함되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따돌림의 피해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주목해 살펴볼 때, 외현적 공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2019)는 물리적, 신체적 폭행 비율이 감소한 현상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부모, 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주로 외현적 공격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계적 공격성의 유형까지 포괄하지 못함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준섭(2019)도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이 교묘하고 증거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비난이나 처벌 적용 또

한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부모나 교사가 개입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계적 공격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여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먼저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깊이 있게 탐색한 이후에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촉진되면서 주목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다. 사이버불링이란, 컴퓨터나 스마트기기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여 인터넷이나 SNS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Ybarra & Mitchell, 2004). 사이버 공간에서는 물리적, 신체적 공격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공격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은밀한 형태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불링은 밀접하다. 이범석과 김성봉(2018)에 의하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경향성이 높아지며,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사이버불링 가해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사이버불링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허진영, 송도선, 김장희, 2020),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 관계적 공격성 연구에 대한 고찰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이 Crick과 Grotpeter(1995)가 관계적 공격성을 개념화하면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에 처음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이래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최지영, 배라영, 2014).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살핀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2014년 이후 활발히 수행되었다(최준섭, 2019).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최근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학계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지 못한 분야이므로(서미정, 2012; 최준섭, 2019),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고 중재할 수 있지만, 관계적 공격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그 결과나 악영향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피해는 누적될 수 있다(Mishna, 2012). 이에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예방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추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 선행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대해 고

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학문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국내 연구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국내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 분석한 국내 학술지 발표 논문은 총 47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석·박사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자료, 연구대상이 영유아나 성인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대상 논문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전자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차,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2차로 수집되었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 발행 연도를 지정하지 않고, 논문명에 ‘아동’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13편, ‘초등학생’과 ‘관계적 공격성’

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4편, ‘청소년’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17편, ‘중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6편, ‘고등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0편, ‘청년’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1편’, ‘대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6편이 나타나, 총 47편을 찾을 수 있었다. 국회전자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동’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16편, ‘초등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3편, ‘청소년’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24편, ‘중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7편, ‘고등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0편, ‘청년’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0편’, ‘대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5편이 나타나, 총 55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검색된 논문 102편 중, 논문 제목, 저자, 출판연도를 파악하여 중복된 논문 49편과 학술대회 발표자료 3편, 청소년 대상이 아닌 유아대상의 논문 2편, 관계적 공격성이 아닌 외현적 공격성을 다룬 논문 1편을 제외하여 총 47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2. 분석절차

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포함해 총 3인의 아동학전공 박사와 박사과정생들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아동학 전문가의 조언을 받

아 분석틀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체 47편의 논문 중 10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평정결과 일치율은 91%로 나타났고, 불일치 항목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함으로써 분석자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단계에서 연구자들은 나머지 논문 37편 전체를, 연구자들 외 1인의 분석자는 나머지 논문의 약 50%에 해당하는 20편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후, 분석자 평정 일치율은 96%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 간에 분석결과가 일치한 항목은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고, 불일치 항목은 공동논의과정을 거쳐 분석범주를 확정하였다.

3.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경향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의 발표현황, 연구대상, 연구유형, 관계적 공격성 변인의 유형, 측정도구,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변인들을 파악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먼저 논문의 발표현황은 최초 발표논문이 나타난 시점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그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청소년초기로, 고등학생을 청소년중기로,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은 청소년후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수집방법과 연구접근법을 살펴보았다. 자료수집방법은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문헌자료,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접근법은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관계적 공격성 변인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 변인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중 어떤 변인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의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변인의 종류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다중반응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특성변인은 성별이나 연령 등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특성과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을 포함하는 발달영역별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환경적 특성변인은 가족, 또래, 교사, 학교, 지역사회, 매체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을 파악하고, 연구된 빈도가 높은 변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해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경향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발표현황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들의 발표연도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47편의 연구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004년에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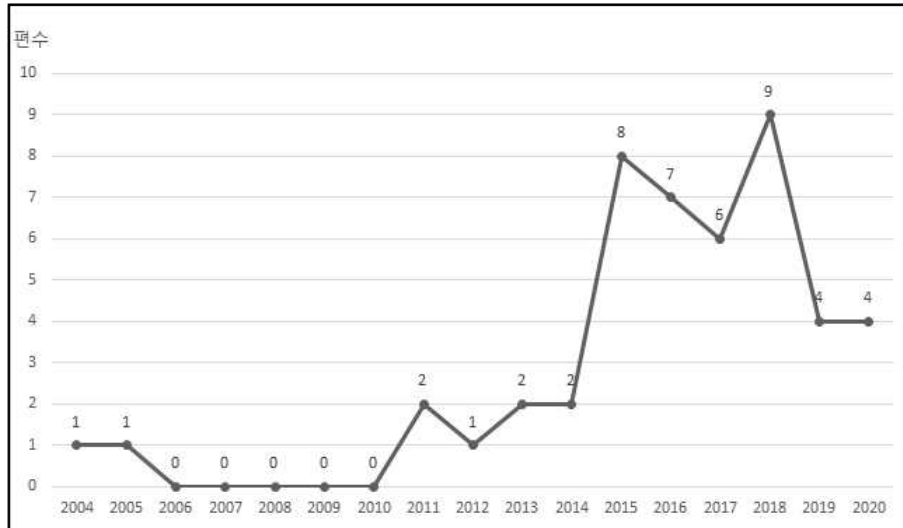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연도별 발표 편수 (N = 47)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을 탐색한 연구(박민정, 최보가, 2004)였다.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이후 2010년부터 꾸준히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대상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들의

대상을 발표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47편의 논문 중 청소년초기 대상 연구가 37편(68.5%)이었으며, 청소년중기 대상 연구가 8편(14.8%), 청소년후기 대상 연구가 9편(16.7%)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청소년초기 대상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 대상 연구가 19편, 중학생 대상 연구가 22편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들은 중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청소년초기에서 청소년중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7편이었는데, 초

표 1. 발표시기별 연구대상의 발달단계 빈도 분포(중복측정)

(N = 47)

청소년기	2010 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
초기	2	2	1	2	2	6	6	5	6	2	3	37 (68.5)
중기	1	1	0	0	0	1	1	1	2	0	1	8 (14.8)
후기	0	0	0	0	0	1	1	1	3	2	1	9 (16.7)

주. 합계는 측정빈도를 기준으로 함.

등학교 고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이었다. 초등학생 대상 연구와 중학생 대상 연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학생 대상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중기와 청소년후기 대상 연구도 주로 최근 5년 사이에 조금씩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의 유형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들의 유형을 자료수집방법과 연구접근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47편의 논문 중 질문지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논문이 45편(91.8%)으로 가장 많았고, 문헌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2편(4.0%)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에는 초등학생 대상의 관계적 공격성 연구동향을 살핀 논문(최준섭, 2019)과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 및 관련변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논문(서미정, 2011)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심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논문(신민진, 하은혜, 2018)과 계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관계적 공격성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논문(김유덕, 김지현, 2017)도 각각 1편(2.0%)씩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접근법을 살펴보면, 문헌연구 2편을 제외한 45편의 논문 중 43편의 논문이 횡단적 접근법을 사용하였고, 1편의 논문에서는 종단적 접근법을, 1편의 논문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혼합해 사용하였다. 단기종단적으로 접근한 연구에는 6개월 간격으로 세 시점에 공격성을 측정한 연구(서미정, 2012)와 2년 간격으로 두 시점에 공격성을 측정한 연구(심희옥, 2005)가 포함되었다.

관계적 공격성 변인의 유형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변인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중 어떤 변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논문 중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변인이 두 가지 이상의 변인 즉, 독립변인으로도, 종속변인으로도 지정된 논문이 포함되

표 2. 관계적 공격성의 변인 유형 빈도 분포(중복측정)

(N = 46)

변인유형	청소년기			합계 (%)
	초기	중기	후기	
독립변인	4	1	0	4 (8.5)
종속변인	27	5	7	35 (74.5)
매개변인	4	1	1	5 (10.6)
조절변인	0	0	0	0 (0.0)
기 타	2	1	1	3 (6.4)

주. 합계는 측정빈도를 기준으로 함.

있기 때문에, 중복측정하여 다중반응 빈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동향연구를 수행한 1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총 46편의 논문 중 관계적 공격성 변인이 종속변인으로 지정된 연구는 35편(7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개변인으로 지정된 연구는 5편(10.6%)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으로 지정된 연구는 4편(5%)이었으며, 조절변인이었던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관계적 공격성 측정도구

전체 47편의 논문에서 관계적 공격성 측정

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문헌연구 2편을 제외한 45편이었다. 그 중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Marsee, Kimonis, & Frick, 2004)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32편(71.1%)의 연구에서 변인하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측정도구의 사용빈도를 연구대상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관계적 공격성의 측정도구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Marsee et al., 2004)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모두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4개의 차원과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관계적 공격성을 평가하는 2개의 차원에 해당하는

표 3. 관계적 공격성 측정도구 사용 빈도 분포 (N = 45)

측정도구 측정도구명 (개발자, 출판연도)	청소년기			합계 (%)
	초기	중기	후기	
공격성 질문지(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uss & Perry, 1992)	1	1	0	1 (2.2)
또래지명도구(Peer Nomination Instrument) (Crick & Gretpeter, 1995)	3	0	0	3 (6.7)
자기보고식 공격성과 사회적 행동 척도 (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orales & Crick, 1998)	0	0	4	4 (8.9)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Marsee et al., 2004)	27	4	4	32 (71.1)
자기보고식 피해와 배척 척도 (Self-Report of Victimization and Exclusion) (Buhs, McGinley, & Toland, 2010)	1	0	0	1 (2.2)
기타	3	2	1	4 (8.9)
전체	35	7	9	45 (100)

주. 합계는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함.

20개의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래를 지목하는 척도인 또래지명도구(Peer Nomination Instrument, Crick & Grotpeter, 1995)를 사용한 논문 3편 중 2편은 또래지명도구를 변안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한 양식(이춘아, 2001)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격성과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인 자기보고식 공격성과 사회적 행동 척도(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orales & Crick, 1998)는 개발 당시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16문항만을 선택하여 변안하고 타당화한 경우(배라영, 최지영, 2018)나 연인관계의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5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임정하, 최정원, 2019)

도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측정은 단일보고자가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즉 가해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청소년 스스로 응답하게 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다루어진 대부분의 주변 변인들도 단일보고자가 응답하는 방식이었으나, 부모 양육태도의 불일치를 살펴본 연구(신동희, 송현주, 2016)에서는 초등학교 여아가 자신의 관계적 공격성을 평가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부모양육태도 질문지에 응답함으로써 다중보고자 응답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 4.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변인의 특성 분포(중복측정)

(N = 46)

변 인			청소년기			합계 (%)
			초기	중기	후기	
개인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12	3	3	15 (13.6)
		연령	4	2	0	4 (3.6)
		사회경제적 지위	0	0	0	0 (0.0)
		기타	0	0	0	0 (0.0)
	발달영역별 특성	신체영역	0	0	0	0 (0.0)
		인지영역	10	5	1	12 (10.9)
		사회정서영역	27	7	8	36 (32.7)
		기타	1	1	0	1 (0.9)
환경적 특성	가족특성		21	3	1	22 (20.0)
	또래특성		9	3	0	9 (8.1)
	교사특성		4	2	0	4 (3.6)
	학교특성		1	1	0	1 (0.9)
	지역사회특성		2	1	0	2 (1.8)
	매체특성		2	1	0	2 (1.8)
	기타		1	1	1	2 (1.8)

주. 합계는 측정빈도를 기준으로 함.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변인들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중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동향연구를 수행한 1편의 논문을 제외한 46편의 논문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61.8%)이 환경적 특성 변인(38.2%)보다 더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변인 중에서는 사회정서영역의 변인이 전체의 약 33%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그 외에 성별(13.6%)과 인지영역의 변인(10.9%)이 다른 변인에 비해 많이 다루어졌다.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성차를 분석한 논문 15편 중 13편은 연구문제나 가설에서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2편의 논문에서는 연구문제나 가설에서의 기술 없이 연구결과에서만 성차를 보고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외에 사회경제적 지위나 그 밖의 특성을 살핀 연구는 없었으며, 발달영역별 특성 중에서 신체영역의 변인을 살핀 연구도 역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적 특성 변인 중에서는 가족특성 변인이 전체의 20%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또래특성이 약 8% 정도 다루어졌다.

2.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영역별 특

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변인 중 인구학적 특성변인은 약 28%, 발달영역별 특성변인은 약 7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7편의 논문에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변인으로서는 성별과 연령이 다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 전체 47편의 논문 중 3편은 연구대상을 여학생으로만 선정하였으며(신동희, 송현주, 2016; 이한나, 송연주, 2020;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2013), 그 밖의 논문에서도 성차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성차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적 공격성이 여학생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보고한 연구(서미정, 2012)도 있었고, 남학생들의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신민진, 하은혜, 2018)도 있었으며, 성차가 없었던 연구(변은실, 이주영, 2016; 이경미, 박주희, 2016)도 있었다. 서미정(2011)이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관계적 공격성을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연구들의 동향연구(최준섭, 2019; 최지영, 배라영, 2014)에서도 관계적 공격성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와 성차가 나타난 연구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성차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래와의 관계에

서 관계적 공격성이 성차가 있음을 밝힌 연구(이영화, 김정연, 2013)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아는 인정욕구나 불안이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아는 불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기제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 대상 연구(임정하, 최정원, 2019)에서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과 함께 다루어진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총 4편이었다.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박민정과 최보가(2004)에 따르면, 연령은 성별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비난을 지각하고 두려워하여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서미정(2012)은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일 때, 5학년 2학기일 때, 6학년 1학기일 때, 세 차례에 걸쳐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여 그 변화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의 약 66%는 관계적 공격성이 낮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약 12%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변화패턴을 보였다. 이외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비교한 연구(정다운 외, 2015)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에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연령에 따라 성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유아나 초등학생에 비해 적응 또는 부적응과 관련되는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한 연구(서미정, 2011)도 있었다. 덧붙여, 관계적 공격성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심리적 통제 등의 변인이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자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SNS 중독경향성(유나, 김승윤, 이상민, 2016), 사이버불링(송예름, 김영희, 2018), 사이버폭력(백문숙, 장석진, 2017) 등의 디지털 공간과 관련된 변인들이 함께 분석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업소진 변인도 중학생 대상 연구(김정화, 2015)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성인진입기 대상의 연구(임정하, 최정원, 2019)에서는 처음으로 연인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이 다루어졌다.

발달영역별 변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7편의 논문에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발달영역별 특성변인을 신체영역 특성, 인지영역 특성, 사회정서영역 특성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영역 특성을 다룬 논문은 한 편도 없었고, 인지영역 특성은 12편(25.5%)의 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사회정서발달 특성은 36편(76.6%)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인지발달 특성과 사회정서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인지영역 변인으로는 내적 귀인, 긍정적 착각, 규범적 신념, 분노 반추, 도덕적 이탈, 의도귀인 등이 있었다. 이들 인지영역 변인은 주로 특정 독립변인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서 매개하는 변인으로 지정되었다.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 인지영역 변인으로는 내적 귀인(김소라, 김희화, 2016)과 긍정적 착각(김경숙, 김완일, 2015)이 있었다. 즉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는 특성, 자신과 관련된 현실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특성은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 인지영역의 변인으로는 공격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김소라, 김희화, 2016), 도덕적 이탈(이다혜, 임성문, 2020), 분노반추(전아영, 김은하, 2020), 의도귀인(임혜민, 최지영, 2019) 등이 있었다. 즉, 공격행동이 정당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특성,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설득하며 합리화하는 특성, 분노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분노 경험을 떠올리려 하는 특성,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하려는 특성은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인지영역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변인들은 분석대상 논문 중 각각 2편 이하의 논문에서만 다루어졌을 뿐 여러 편의 논문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변인은 없었다.

둘째,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사회정서영역의 변인으로는 정서조절능력, 열등감, 내면화된 수치심, 우울, 불안, 거부민감성 등이 있었다. 먼저 정서조절능력 변인은 전체 47편의 논문 중 7편(14.9%)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는데, 주로 특정 독립변인과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로 지정되었다. 이때 청소년의 거부민감성이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독립변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은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박우람, 홍상황, 2015a),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강은영, 이영애, 2019; 김수정, 이지연, 2017; 이은숙, 2017)의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건강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긍정적 전략과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부정적 전략의 사용을 포함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이하연과 박주희(2014)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은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정서 변인은 전체 47편의 논문 중 18편(38.3%)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부정적 정서는 열등감, 내면화된 수치심, 우울, 불안이 있었다. 대학생 대상 연구(임혜민, 최지영, 2019)에서 열등감은 관계적 공격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때 의도귀인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대학생이 열등감 수준이 높을 때, 타인의 행위를 의도적 또는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구자영과 이상희(2018)는 대학생의 열등감이 관계적 공격성에서 SNS 중독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도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 주로 대학생 대상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개인의 내면에 자리잡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수치심을 의미한다(Cook, 2001).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분노억제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우, 홍혜영, 2016).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주로 억제하는 편이며, 이러한 분노 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 우울과 불안도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에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우울 변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김수정, 이지연, 2017),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타당화하는 작업에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배라영, 최지영, 2018). 불안 변인의 경우, 개인이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로서의 불안(이영화, 김경연, 2013)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사회불안(김경숙, 김완일, 2015; 노우빈, 홍혜영, 2015)이 모두 다루어졌다.

부정적 정서 외에 주목할 만한 변인 중 하나로 거부민감성을 들 수 있다. 전체 47편의 논문 중 거부민감성을 다룬 논문은 총 11편(23.4%)이었다.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란 의미있고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해 더 민감하게 지각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인지적, 정서적으로 과잉반응하는 개인적 성향을 말한다(Downey & Feldman, 1996). 박우람과 홍상황(2015b)은 거부민감성이 초등학생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적대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 친구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로를 밝힌 바 있다. 이 때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는 자기조절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상황, 박우람, 2016). 또한, 몇몇 연구(이경미, 박주희, 2016; 임정하, 최정원, 2019)에서 거부민감성은 환경적 특성 변인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나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같은 부모 관련 변인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을 가족 특성, 또래 특성, 교사 특성,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과 매체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환경적 특성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변인은 가족특성이었으며, 전체 47편의 논문 중 22편(46.8%)에서 다루어졌다. 또래, 교사, 학교특성을 다룬 논문은 각각 9편, 4편, 1편이었으며, 지역사회, 매체특성을 다룬 논문은 각각 2편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특성.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가족 특성으로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루어졌다. 이 때, 부모 변인을 부와 모

중 어느 한 명을 대상으로 선정해 수행한 연구(예: 김소라, 김희화, 2016)도 있었고, 구분 없이 한 변인으로 지정하여 살펴본 연구(예: 김수정, 이지연, 2017)도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포함한다(박민정, 최보가, 2004; 허묘연, 2004). 이 중, 긍정적 양육행동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밀접히 관련되었다(김소라, 김희화, 2016). 즉,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정적 양육행동은 남, 녀 초등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민정과 최보가의 연구(2004)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와 모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신동희, 송현주, 2016)도 있었다.

부모의 특정 양육행동에 중점을 둔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행동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보호 등이 다루어졌고, 긍정적 양육행동으로는 부모감독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심리적 통제는 9편(25.5%)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기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정유정, 전해성, 2018)도 있었고, 동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하나, 이승연, 2015)도 있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정서조절, 거부민감성 등이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김수정, 이지연, 2017; 이경미, 박주희, 2016). 또한, 부모의 과보호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역시 관계적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고,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미정(2012)은 부모감독이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족체계 요인임을 밝혀 관계적 공격성에 있어 부모 감독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또래, 교사 및 학교 특성.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또래, 교사, 학교 특성 중 분석 대상 논문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특성은 또래 변인이었다. 또래 변인으로서는 일탈친구(서미정, 2012), 또래거부와 또래수용(심희옥, 2005), 또래압력(이다혜, 임성문, 2020), 또래로부터의 괴롭힘(박민정, 최보가, 2004) 등이 다루어졌다. 이들 중 일탈친구, 또래거부, 또래압력,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은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 또래수용은 관계적 공격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또래 특성은 가족 특성이 미

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 특성 중 하나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때, 도덕적 이탈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데, 이 때 도덕적 이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 압력이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다혜, 임성문, 2020).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쉽게 도덕적 이탈을 하게 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데, 또래 압력이 높다면 관계적 공격성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 특성으로는 교사 감독과 교사 지지(서미정, 2011), 교사에 의한 폭력(박민정, 최보가, 2004) 등의 변인이 다루어졌다. 서미정(2012)은 교사 감독이 관계적 공격성 고위험 변화유형을 예측하지만, 교사 지지는 이를 예측하지 못함을 밝혔다. 또한 박민정과 최보가의 연구(2004)에서 교사의 정서적 폭력은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 학생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동시에 그러한 행동특성을 쉽게 모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특성을 다룬 논문은 1편이었으며,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한 논문이었다. 해당논문(서미정, 2011)은 명칭을 학교 변인으로 칭하였지만, 내용 면에서는 수업이나 규칙을 포함한 학교 적응 변인과 교사의 지지나 교사와의 애착을 포함한 교사와의 관계 변인으로 구성되었고, 이 특성의 효과크기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우울과 거부민감성 등의 개인적 특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그 효과

를 조절하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홍상환, 박우람, 2016). 다시 말해, 개인의 우울이나 거부민감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또래나 교사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인정,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지할 때, 관계적 공격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및 매체 특성.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지역사회 및 매체 특성을 다룬 논문은 총 2편으로 소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과 매체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서미정, 2011; 박민정, 최보가, 2004). 이 두 논문은 관계적 공격성의 예측 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서미정(2011)은 관계적 공격성 고위험 변화집단의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는데, 다른 여러 변인들과 함께 지역사회감독과 폭력매체노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지역사회감독과 폭력매체노출이 고위험 변화집단을 예측하였으나, 관계적 공격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박민정과 최보가(2004)는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역사회환경과 대중매체 폭력노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 대중매체 폭력노출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청소년

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들의 경향과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논의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을 다룬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난 2004년 처음 발표된 이후 최근 10년간 꾸준히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중기나 후기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중학생 대상 연구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연구도 소수이긴 하지만 최근 5년간 조금씩 시도되어 온 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 중기와 후기는 개인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이 시기에 관계의 유형이 다양하게 확장되므로, 관계적 공격성은 친구관계에서만 아니라 연인관계나 직장의 동료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기와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 연구도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유형이나 관계적 공격성 평가방식은 상당히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연구유형은 질문지법을 사용한 조사연구와 횡단적 접근을 적용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관찰연구나 실험연구가 드물었으며, 종단적 접근을 적용한 연구도 한두 편에 머물렀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자기보고식 질문지

를 이용해 관계적 공격성을 평가하였고, 또래 지명식 평가도구를 사용한 연구(심희옥, 2005)는 소수에 그쳤으며, 대부분 단일보고자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만 활용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계적 공격성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Voulgaridou & Kokkinos, 2015).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응답치가 실제 경험이나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을 평가할 때 교사나 또래 등 연구대상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타인의 응답도 포함하는 다중보고자 방식을 채택하거나 관찰법이나 면접법, 검사법 등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일보고자의 응답치는 공유변량으로 인해 관련성이 높게 추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적 공격성 변인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분석한 연구들의 약 75%에서 관계적 공격성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이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의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주변 변인과의 관계나 모형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기능이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을 독립변인이나 매개변인 혹은 조절변인 등으로 활용한 연구들에 대해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추후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척도 개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모두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문항을 선별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최근 사회문화적인 맥락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관계 유형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별도로 관계적 공격성만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있다면,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은 사회정서 영역에, 환경적 특성은 가족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시기를 청소년기로 국한하지 않고 관계적 공격성의 연구동향을 살폈던 선행연구들(최준섭, 2019; 최지영, 배라영, 2014) 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이나 연령 관련 분석은 수행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연구는 한 편도 수행되지 않았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이중섭, 이용교, 2009)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의 이혼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관계에서의 배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해 보다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대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발달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사회정서영역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반면, 신체 영역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외에서는 행동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유전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Tackett, Waldman, & Lahey, 2009)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나

2차 성장을 포함해 생물학적 특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특성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로 하는 가족 특성에 중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추후에는 또래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과 매체 특성에까지 관심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관계적 공격성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여성에게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에 성차가 있다는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 Voulgaridou와 Kokkinos(2015)는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등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오류가 성차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에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47편의 논문 중 소수 논문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가 나타난 것은 일부는 방법론적 측면으로 인해, 일부는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와 기제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되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은 분노를 억제할 때 인정욕구와 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은 높은 불안이 관계적 공격성과 바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이영화, 김경연, 2013) 남학생에게는 분노를 억제하기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여학생에게는 내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지만, 청소년기 내 연령 변화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가 반드시 부적응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령이 관계적 공격성의 부정적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고 간주하기보다는 하나의 배경 특성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령변화에 따른 종단적 연구들(서미정, 2012; 심희옥, 2005)을 바탕으로 볼 때,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조기 개입이나 중재가 수행된다면 관계적 공격성이 감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청소년기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공간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공간이 되고, 학업이나 성적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강해지며 후기에는 또래관계 뿐 아니라 점차 이성과의 연인관계로 그 유형이 다양해진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높은 비율로 분석된 개인적 특성의 발달영역별 변인으로는 정서조절 능력과 열등감, 내면화된 수치심,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거부민감성 등이 있었다. 사회정서영역 변인에서 다루어진 부정적

정서들은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형성된 정서들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른 시기부터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들을 미해결된 상태로 두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관계적 공격성 연구들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 인지영역 변인들(김소라, 김희화, 2016; 김경숙, 김완일, 2015)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어떤 결과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견해 내는 인지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관계적 공격성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신체영역 변인들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영역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신체상에 민감하고, 신체상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등과 밀접하여 심리적, 행동적 적응의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urray, Byrne, & Reiger, 2011).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발달상 개인차가 크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관계적 공격성의 가해 및 피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입 역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과 함께 분석된 환경적 특성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과보호, 부모감독 등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가족특성 변인이 가장 많았다. 이는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은 그 뿌리가 가족특성에서 기인하며, 특히 엄격하거나 통제가 강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Casper, Card,

& Barlow, 2020; Kawabata, Alink, Tseng, van IJzendoorn, & Crick, 2011)과 일맥상통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이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외 연구(Casper et al., 2020)에 따르면, 가해 청소년 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경우도 관계적 공격성 경험이 가족 특성과 관련을 보였다. 예를 들어, 또래로부터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이미 가족 내에서 적대감이나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적 공격성의 가해와 피해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환경적 특성에서 또래와 교사, 학교 특성으로는 특정 변인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거나 다수의 변인들이 탐색된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기에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환경은 또래와 학교라고 볼 수 있다. 박민정 and 최보가의 연구(2004)에서도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 특성 중 또래 및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다면, 또래와 교사, 학교 특성 변인들이 더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적 특성과 가족 특성이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또래, 교사, 학교 특성들의 역할이 관계적 공격성 예방에 더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매체 특성 역시 소수의 변인을 탐색하는 수준에 그쳤고,

변인들 중 대중매체 폭력노출의 영향력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박민정, 최보가, 2004). 그러나 지역사회 및 매체 특성 변인을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된 시점과 최근은 지역사회와 매체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으므로, 보다 최신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에는 기존의 이론이나 모형을 바탕으로 그 구성요소별로 분석하는 연역적 접근방식과 수집된 문헌 자료들이 나타내는 개별 결과들을 기초로 그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귀납적 접근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귀납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추후 관계적 공격성 관련 연구들이 보다 축적되면 전자의 방식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최지영, 배라영, 2014)의 논문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검색어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관계적 공격성과 근접한 개념인 또래 갈등이나 또래 괴롭힘 등을 다룬 논문들의 경우, 내용적 측면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의 연구 경향과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술적으로는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실천적으로는 청소년과 부모 대상의 관계적 공격성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은영, 이영애 (201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조절능력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2(3), 319-337.
-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구자영, 이상희 (2018). 한국 대학생의 열등감과 인스타그램 중독경향성의 관계: 관계적 공격성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0(3), 447-465.
- 김경숙, 김완일 (2015). 청소년의 사회 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착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2), 515-541.
- 김소라, 김희화 (2016).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적 귀인 및 공격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6), 57-68.
- 김수정, 이지연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 우울 및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교육문제연구*, 30(4), 165-188.
- 김유덕, 김지현 (2017). 군 병사의 관계적 공격성 감소를 위한 계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253-279.
- 김정화 (2015). 중학생의 학업소진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2), 159-183.
- 노우빈,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통합치료연구*, 7(2), 81-102.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수진, 박창열, 이동훈 (2020). 주도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의 학급비선호또래연결망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3(3), 145-170.
- 박우람, 홍상황 (2015a).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1-23.
- 박우람, 홍상황 (2015b).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친구관계의 질의 관계: 적대감,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2), 285-302.
- 배라영, 최지영 (2018).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55-79.
- 백문숙, 장석진 (201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기 사이버 폭력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199-224.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서미정 (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 예측요

- 인. *한국아동복지학*, 38, 158-186.
- 송예름, 김영희 (201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와 사이버불링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527-554.
- 신동희, 송현주 (2016). 부모 간 양육태도의 불일치에 따른 초기 청소년기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3(10), 1-27.
- 신민진, 하은혜 (2018).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집단의 특성: 복지시설 심리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연구*, 16(1), 1-19.
- 심희옥 (2005).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또래관계와의 횡, 종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26(2), 121-134.
- 유나, 김승윤, 이상민 (2016).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8(3), 337-350.
- 이경미, 박주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31-46.
- 이다혜, 임성문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 도덕적 이탈과 또래압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2(1), 19-37.
- 이범석, 김성봉 (201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공감 능력의 매개 효과. *교육치료연구*, 10(3), 343-357.
- 이영화, 김정연 (20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인정욕구, 불안 및 분노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51(2), 219-228.
- 이은숙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111-131.
-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1-27.
- 이춘아 (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 이한나, 송연주 (2020). 여대생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질투와 시샘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1), 367-388.
-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2013).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조절능력과 애착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2(3), 207-229.
- 임정우, 홍혜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1), 63-75.
- 임정하, 최정원 (2019).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3), 51-69.
- 임혜민, 최지영 (2019). 대학생의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의 매개

- 효과. *인간발달연구*, 26(3), 71-88.
- 전아영, 김은하 (2020). 청소년의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381-393.
- 정다운, 김지웅, 홍현주, 김승준, 이나현, 양지선, 안송이, 임우영, 정경운 (2015). 국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성별에 따른 직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 *정신신체의학*, 23(2), 86-9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옥분 (2015). 개정판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신, 이재용 (2017). 중학생의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역동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상담학연구*, 18(4), 317-341.
- 정유정, 전해성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4), 743-751.
- 최준섭 (2019).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과 과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8(4), 401-415.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 한나, 이승연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가족삼각화와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81-203.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허진영, 송도선, 김장희 (2020). 초등학교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7(2), 81-96.
- 홍상황, 박우람 (2016). 아동의 거부민감성, 우울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5(3), 233-256.
- Atwater, E. (1996). *Adolescence* (4th ed.). New York: Prentice-Hall.
- Bjö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30(3), 177-188.
- Bowker, J. C., & Etkin, R. G. (2014). Does humor explain why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are popular?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3(8), 1322-1332.
- Buhs, E. S., McGinley, M., & Toland, M. D. (2010). Over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in Latinos and European Americans: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ethnicity, gender, grade level in early adolescent grou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1), 171-197.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sper, D. M., Card, N. A., & Barlow, C. (2020).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during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unique associations with popularity, peer acceptance, rejection, and friend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olescence*, 80, 41-52.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llis, W. E., Crooks, C. V., & Wolfe, D. A. (2009).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and dating relationships: Links to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8(2), 253-26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Kawabata, Y., Alink, R. A., Tseng, W. L., van IJzendoorn, M. H., & Crick, N. R. (2011).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ssociated with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nceptu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31(4), 240-278.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New Orleans: University of New Orleans.
- Mishna, F. (2012). *Bullying: A guide to research, intervention,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Murray, K. M., Byrne, D. C., & Reiger, E. (2011). Investigating adolescent stress and body image. *Journal of Adolescence*, 34(2), 269-278.
- Preddy, T. M., & Fite, P. J. (2012). Differential associations betwee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and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4(2), 182-190.
- Tackett, J. L., Waldman, L. D., & Lahey, B. B. (2009). Etiology and measurement of relational aggression: A multi-informant behavior gene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4), 722-733.
- Voulgaridou, I., & Kokkinos, C. M. (2015).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87-97.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Online aggressor/targets, aggressors, and targets: A comparison of associated youth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7), 1308-1316.

1 차원고접수 : 2021. 01. 20.

수정원고접수 : 2021. 02. 28.

최종게재결정 : 2021. 03. 25.

Relation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rom Published Articles in South Korea

Park, Sungmin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studies on relation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in South Korea. First, a systematic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on relational aggression was conducted. Second,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elevant to relational aggression were extracted from empirical findings of published articles. An electronic search of the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20 identified 47 studies for inclusion. Studies were coded to extract data on participant characteristics, research design, instruments, type of variable and relevant factors. Results indicate that the articles on relational aggression of adolescents have been steadily published over the past 10 years. Participants were mostly in their early adolescence and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method was most frequently used to assess relational aggression. Also, relational aggression was analyzed mainly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cross-sectional approach. Findings demonstrat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linked to relational aggression were primarily socio-emotional factors including emotion regulations, rejection sensitivity, and negative emotions. Also, environmental factors linked to relational aggression were mainly parenting style including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Recommendations and consideration are given to future directions in the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Keywords: relational aggression, adolescence,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ystematic review, published articles